

第27回 定例會

2005年度福祉女性局所管成果主義豫算(案)
豫 備 審 查 報 告 書

2004. 12.

保 健 社 會 委 員 會

목 차

I.	소관부서 회부안건	1
II.	심사경과	1
III.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내용	1
	1. 세 입	1
	2. 세 출	2
	3.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
IV.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제안설명 요지	5
	1. 예산안 총괄	5
	2. 세출예산안의 특성	6
	3. 일반회계	6
	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1
	1. 주요 사항별 검토	11
	2. 주요 사업별 검토	21
VI.	예비심사 결과	37
	붙임1) 수정동의 내용	38
	붙임2) 보건사회위원회 계수조정 심사표	41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2
------	-----

2004년 12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I. 소관부서 회부 안건

-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I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4년 11월 11일
-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15일
-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 2004년 12월 6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III.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내용

1. 세 입

<표1>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예산안	2004 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652,235	650,642	1,593	0.2%
일	반 회 계	316,435	343,354	△26,919	△7.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5,800	307,288	28,512	9.3%

-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522억원 3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5억 93백만원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0.2% 늘어났음

2. 세 출

<표2>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예산안	2004 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1,783,603	1,627,525	156,078	9.6%
일	반 회 계	1,447,803	1,320,237	127,566	9.7%
	사 회 복 지	1,002,361	959,380	42,981	4.5%
	여 성 정 책	283,587	225,525	58,062	25.7%
	보 건	161,855	135,322	26,523	19.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5,800	307,288	28,512	9.3%

-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836억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6%가 증가하여 서울시 전체 예산이 9.7%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4,478억 3백만원은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조 1,500억원의 14.3%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3>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	2005 예산안
서울시 예산 (A)		10,591,389	11,236,366	10,150,000
서울시예산증감율		20.0%	6.1%	△9.7%
복지여성국 예산 (B)		1,246,263	1,320,237	1,447,803
복지여성국 예산증감율		6.5%	5.9%	9.7%
비중(B/A)		11.8%	11.7%	14.3%

3.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164억 35백만원으로 전년도의 3,433억 54백만원에 비하여 269억 19백만원이 감액되어 7.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5억 39백만원이 늘어난 210억 86백만원이나,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 중 상당부분이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고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304억 58백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표4>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분야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예산안	2004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316,435	343,354	△26,919	△7.8%	
세 외 수 입	소	계	21,086	17,547	3,539	20.2%
		재산임대수입(은평,서대문병원)	309	290	19	6.6%
		수수료 증지수입(보건환경,장묘)	1,571	1,515	56	3.7%
		주차요금수입(산하사업소)	277	84	193	229.8%
		의료사업수입(3개시립병원)	15,193	13,023	2,170	16.7%
		기타사업수입 (장묘사업소)	3,275	2,276	999	43.9%
		징수교부금(위생과)	18	11	7	63.6%
		의무실 운영 (진료수수료)	17	16	1	6.3%
		과년도 수입 (시립병원 수수료)	426	332	94	28.3%
국 고 보 조 금 등		295,349	325,807	△30,458	△9.3%	

2) 세출예산안

-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4,478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조 3,202억 37백만원에 비하여 1,275억 66백만원이 증액되어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1조 23억 61백만원, 여성정책 2,835억 87백만원, 보건 1,618억 55백만원의 재원이 각각 배분되었음

<표5>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예산안	2004예산	증 감	증감률	2003결산
합	계	1,447,803	1,320,237	127,566	9.7%	1,187,494
사	회 복 지	1,002,361	959,380	14,935	1.6%	898,990
	◦ 사 회 복 지	575,283	529,219	46,064	8.7%	476,785
	◦ 장 애 인 복 지	216,196	223,266	△7,070	△3.2%	184,261
	◦ 노 인 복 지	199,334	195,713	3,621	1.9%	225,354
	◦ 노 숙 자 보 호	11,548	11,182	366	3.2%	12,590
여	성 정 책	283,587	225,525	52,290	31.0%	161,466
	◦ 여 성 정 책	21,067	23,085	△2,018	△8.7%	10,924
	◦ 가 정 복 지	9,906	8,324	1,582	19.0%	13,987
	◦ 유 아 복 지	206,943	149,171	57,772	38.7%	99,278
	◦ 아 동 복 지	41,511	37,616	3,895	10.4%	29,637
	◦ 여성발전센터 운영	-	3,555	△3,555	△100%	4,173
	◦ 여성보호센터 운영	2,076	1,763	313	17.7%	1,647
	◦ 아동복지센터 운영	2,084	2,011	73	3.6%	1,820
보	건	161,855	135,332	26,523	19.6%	127,038
	◦ 보 건 관 리	2,304	2,905	△601	△20.6%	3,138
	◦ 의 약 관 리	85,477	62,636	22,841	36.4%	57,908
	◦ 보건 환경 연구원	23,262	21,850	1,412	6.4%	19,146
	◦ 아 동 병 원	13,786	12,345	1,441	11.6%	10,894
	◦ 은 평 병 원	15,094	13,463	1,631	12.1%	11,002
	◦ 서 대 문 병 원	21,932	22,133	△201	△0.9%	13,435
	◦ 동 부 병 원	-	-	-	-	11,515

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358억원으로 전년도의 3,072억 88백만원에 비하여 285억 12백만원이 증액되어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비가 주된 세입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의 매칭펀드이므로 국비와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있음

- 세출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자의 증가, 중복·과잉진료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표6>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재정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예산안	2004예산액	증 감	증감률
세 입	합 계	335,800	307,288	28,512	9.3
	사 업 외 수 입	168,365	154,999	13,366	8.6
	순 세 계 잉 여 금	256	1,210	△954	△78.8
	일반회계 전입금	167,436	152,288	15,148	9.9
	이자 및 잡수입	673	1,501	△828	△55.2
	국 고 보 조 금	167,435	152,289	15,146	9.9
세 출	합 계	335,800	307,288	28,512	9.3
	의 료 보 호 비	334,844	306,332	28,512	9.3
	기 금 운 영 비	956	956	-	-

IV.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봉화 복지여성국장)

1. 예산안 총괄

- 2005년도 우리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시 전체 예산은 14조 5,658억원으로 금년대비 7.7%가 감소되었으나, 복지·여성부분의 예산은 금년도 보다 9.6%가 증가한 1조 7,836억원(총계규모)을 편성하였음
- 실질적인 예산규모인 순계규모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간 중복계상분 1,674억원을 제외한 1조 6,162억원으로 금년 대비 9.5% 증가된 것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 순계규모가 금년 대비 9.7% 감소한 것에 비하면 복지·여성분야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결과임

2. 세출예산안의 특성

-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사회복지관등 운영 내실화, 노숙자보호·지원, 의료급여 등 사회취약계층이 더불어 잘사는 시민공동체 구현 사업에 7,552억원을 투입,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여성의 직업교육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외여성 지원확대와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사업에 금년대비 약 18%가 감소한 23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금년보다 축소되었기 때문임
- 아동보호와 건전가정육성, 보육수요충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유아 및 아동복지 분야에는 금년대비 약 32% 대폭 증액한 2,604억원을 계상하였음
-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수준향상과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 노인 기초생활 보장, 재가서비스 확충 및 장사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에 1,993억원을 책정, 자원 배분의 비중을 높였음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승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정비, 장애인콜택시 운영확대,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안정 사업 등에 약 2,162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와 화장실 문화의 세계일류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첨단화장실 설치 등 위생관리 분야에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체계 강화로 대시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건관리 분야에 금년보다 약 20% 증가한 1,596억원을 배분하였음

3.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은 총 3,164억 35백만원으로 2004년의 3,433억 55백만원 보다 269억 19백만원이 감소(△7.8%) 되었음

- 2개 시립병원(은평·서대문)의 임대료 3억 89백만원, 증지수입(노인 복지과, 보건환경연구원) 15억 71백만원, 주차요금(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사업소) 2억 77백만원 의료사업 수입(아동·은평·서대문병원) 151억 93백만원, 기타 사업수입(장묘사업소) 32억 75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위생과) 18백만원, 기타 잡수입(시청의무실 및 치과진료실) 17백만원, 과년도 수입(3개 시립병원 의료사업 수입) 4억 26백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304억 58백만원이 감소(△9.3%)된 2,953억 4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원인은 국고보조 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나. 세출예산

- 다음으로, 세출은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실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주의예산안으로써 저소득시민 지원강화 등 10개 분야 전략목표 추진사업에 필요한 1조 4,478억 3백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1조 3,202억 37백만원보다 1,275억 66백만원(9.7%) 증가한 규모임
-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시민, 노숙자보호 등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 총 5,868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 대비 464억 29백만원(8.6%)이 증액된 것임
 -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시민의 지원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긴급구호사업 및 틈새계층보호, 부랑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노숙자보호사업 등에 총 4,761억 5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322억 56백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39억 7천만원, 재활 프로그램 실시기관운영 2억 5천만원 등 총 366억 51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96개소) 및 기능보강에 344억 9백만원과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이동목욕사업, 서울복지재단출연금, 복지재단 이전 및 개보수비 등 총 595억 3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등 복지시책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에 13억 9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여성정책 및 보육·아동복지분야 예산은, 총 2,835억 88백만원으로 금년대비 580억 63백만원이 대폭 증가된 규모(25.7%)로서, 이는 보육시설 운영비의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금년에 비해 대폭 증가된데 기인한 것임
 -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발전센터(5개소) 운영비 45억 82백만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3억 99백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주간행사, 여성발전기금 조성,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지원 등 사업과 소외여성 보호 및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운영, 여성보호센터 운영,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선도보호시설 지원, 성매매 종사여성 재활지원 등 여성정책분야에 총 231억 43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건강한 가족문화가꾸기와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비에 257억 49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 22억 34백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지원 80억 21백만원, 아동복지센터 운영비 20억 84백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72억 95백만원 등 총 534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육 수요 충족 및 서비스향상과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방과후 교실 확대 사업비 27억 1천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927억 52백만원,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 지원 10억 53백만원 등 유아복지 부분에 총 2,069억 4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총 1,993억34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36억 22백만원(1.9%)이 증가되었음
 - 이는 노인교통수당의 인상, 서부노인전문요양원 착공, 노인생활 시설 운영비 증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 가내 시액이 증가됨에 따른 것임
 -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보호노인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생활시설(28개소) 및 기능보강에 285억 21백만원,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 노인전문요양원(6개소) 건립비 182억 77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저소득노인 지원과 노인사회 활동지원을 위해 경로연금 및 노인위생비 지급에 258억 9백만원, 경로식당 지원, 노인의 집 운영 등에 30억 63백만원, 노인 교통수당 지급 520억 73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62억 61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55억 13백만원 등 총 1,178억 9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노인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는 재가복지시설운영비(91개소) 및 기능보강비 87억 94백만원, 가정도우미 사업 46억 59백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31억 52백만원 등 총166억 99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 장묘시설 현대화와 구립 납골시설건립 지원, 장묘시설 위탁 운영비 등 장묘관련 사업에 금년보다 97억 26백만원이 감소한 (△35.7%) 총 175억 23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장애인복지 분야 세출은 총 2,161억 9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 7천만원이 적게(△3.1%) 편성되었음
 - 이는 승강편의시설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되고, 투자비가 많은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체육시설 및 양천장애인복지관 건립 완료에 따라 기인된 것임

- 주요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지하철승강시설(엘리베이터등 761대) 확충, 콜택시 운영(100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노원, 용산), 무료셔틀버스 운영(25대) 등에 742억 6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의 능력 배양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공동생활가정 운영(95개소),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60개소) 등에 385억 7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3개소), 장애인복지관 운영(34개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34개소),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82개소),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54개소), 생활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32개소) 등 총 1,025억 1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 위생 및 보건분야에는 총1,618억 5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대비 265억 3백만원이 증가(19.6%)된 규모임
 - 증가된 이유는 시립병원 건립비의(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보라매 병원) 2005년도 투자분 반영과 시립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병원지원형 거주시설운영 등 신규사업 반영과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가내시 금액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임
 -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Hi-Seoul 서울사랑음식 축제, 화장실 개선사업 등 위생관리 분야에 총 23억 4백만원, 시립병원(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보라매 병원) 신축 및 기능보강 160억 23백만원, 병원 위탁운영비(서울 의료원, 동부, 보라매 등)에 209억 62백만원,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 및 구강보건 사업 97억 86백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2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25개소), 병원 지원형 거주시설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보건관리 분야에 총854억 7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밖에도 산하기관 운영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232억 62백만원, 아동병원 137억 86백만원, 은평병원 150억 94백만원, 서대문 병원에 219억 3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복지여성국 전체에 해당되는 일반 행정관리 예산은 총 800억 35백만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3억 75백만원이 감소(△0.5%)한 것으로,
 - 이는 인건비 646억 2백만원, 기본경비 110억 5백만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억 28백만원임

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3,358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3,072억 88백만원보다 285억 11백만원 증가(9.3%)된 규모이며, 주된 증가사유는 의료수급대상자 확대와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임
-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이 1,674억 36백만원, 2004년 결산잉여금 2억 56백만원, 예금 이자수입 등이 6억 72백만원임
-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비 3,348억 44백만원, 기금운영비 9억 56백만원임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주요 사항별 검토

(1) 사회복지 분야

<표7> 성과목표별 재원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성 과 목 표	2005 예산안	2004 예산	증 감
합 계	909,534	835,089	74,445
시민 기초생활 보장	848,607	788,737	59,870
○ 복지 사각지대 해소	811,956	751,254	60,702
○ 자활지원 사업 내실화	36,651	37,483	△832
민간참여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60,927	46,352	14,575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강화	59,532	45,177	14,355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	1,395	1,175	220

-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노숙자에 대한 자활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하여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05년도 재원배분의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줄어든 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부담이 시설투자를 위축시킨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복지재단의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본재산 100억원을 출연하고, 2005년 6월 구(舊) 기상청 건물(종로구 신문로2가)로 이전하기 위한 건물 리모델링 비용 2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음
- 주요 증액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 197억 41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자녀 학비지원 ----- 11억 62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자녀 교육경비지원 -- 19억 91백만원
 - 저소득시민 위문품 지원 ----- 4억 56백만원
 - 재해구호기금 적립 ----- 19억 25백만원
 - 희망의집 운영 ----- 6억 20백만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 151억 47백만원
 - 의료급여사업 ----- 285억 12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 6억 56백만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26억 5백만원
 - 사회복지관 운영실적 평가 ----- 3억 60백만원

-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 104억 90백만원
- 등 총 29개 사업에 854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감액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 19억 28백만원
 -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운영 ----- 5억 12백만원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15억 35백만원
 - 등 총 11개사업에 50억 5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신규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서울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및 개보수 사업비 20억원임

(2) 여성·보육 분야

<표8> 성과목표별 재원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성 과 목 표	2005 예산안	2004 예산	증 감
합 계	279,295	218,334	60,96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4,653	14,828	△175
○여성 취업·창업 지원	6,982	7,213	△231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	7,671	7,615	56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	57,700	54,335	3,365
○소외여성 지원 확대	6,649	10,275	△3,626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	51,051	44,060	6,991
보육수요 충족 및 서비스 향상	206,942	149,171	57,771
○보육시설 확충·개선	9,163	6,282	2,881
○맞춤형 보육 확대	3,638	3,358	280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194,141	139,531	54,610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방과후 교실 운영 등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밖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 관련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요양시설로 전환한 부랑 여성시설이나 금년도에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완료된 성매매 종사여성 재활지원 사업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게 됨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도 보육시설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예에 따라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할 계획임
- 주요 증액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32억 6백만원
 -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 ----- 10억 5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충 ----- 23억 73백만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11억 4백만원
 -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 3억 10백만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 ----- 28억 73백만원
 - 방과후 교실 확대 ----- 3억 26백만원
 - 보육시설 운영 ----- 536억 29백만원
 등 18개사업에 672억 3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감액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 ----- 17억 54백만원
 -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 4억 4백만원
 -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 3억 62백만원
 - 성매매 종사여성 재활 지원 ----- 11억 14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5억 85백만원
 -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 4억 94백만원
 등 총 14개사업에 54억 4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신규사업으로는
 - 여성네트워크 강화(세계여성학대회) ----- 2억 59백만원
 -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 지원 ----- 10억 53백만원
- 등 2개사업에 13억 1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3) 노인복지 분야

<표9> 성과목표별 재원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성 과 목 표	2005 예산안	2004 예산	증 감
합 계	198,912	194,717	4,195
노인복지 수준 향상	181,389	167,467	13,922
○ 요보호노인 보호체계 구축	46,798	38,257	8,541
○ 저소득 노인 지원	28,872	29,501	△629
○ 사회활동 지원 및 취업 활성화	89,020	83,569	5,451
○ 노인재가복지서비스 확대	16,699	16,140	559
장사문화 개선	17,523	27,250	△9,727
○ 시설운영 개선 및 화장·산골 확대	17,523	27,250	△9,727

-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책임이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이들의 요양·보호와 상담·치료를 위한 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구립시설에 대하여도 시비를 지원하여 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하겠음
-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우선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하여는 지역에서의 수요는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대인 서비스에 있어 가정도우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정봉사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입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가정봉사원 사업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서울시에 완전히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 제도에 대한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서비스의 비교·평가를 실시한 다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서울추모공원 사업의 경우 국립의료원의 유치가 불투명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지원사업의 경우 관할 자치구내 건립은 사실상 어렵고 다른 시도에 건립하는 것도 금년도 추진내용을 볼 때 현실성이 없으므로 2005년도에 관련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노인복지 관련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 노인생활시설 운영 ----- 55억 60백만원
 -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 8억 45백만원
 -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 55억 83백만원
 - 용산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 8억 66백만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12억 10백만원
 - 노인교통수당 지급 ----- 36억원
 -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지원 ----- 3억 5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 37억 63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7억 32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3억 7백만원
 - 시립묘지 보수·보강사업 ----- 6억원 43백만원
 등 22개사업에 245억 4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감액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32억 32백만원

- 동작노인전문요양원 건립 ----- 7억 76백만원
 - 경로연금 지급 ----- 10억 3백만원
 -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 7억 22백만원
 -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 7억 36백만원
 -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 ----- 103억 26백만원
- 등 총 11개사업에 174억원이 감액되었음

○ 신규사업으로는

- 영등포노인전문요양원 건립 ----- 9억 41백만원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 ----- 11억원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상담센터) ----- 94백만원
 - 추모공원 건립 ----- 10억원
- 등 6개사업에 32억 78백만원이 계상되었음

(4) 장애인복지 분야

<표10> 성과목표별 자원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성 과 목 표	2005 예산안	2004 예산	증 감
합 계	215,347	221,639	△6,292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215,347	221,639	△6,292
○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	74,270	88,670	△14,400
○ 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	38,576	37,463	1,113
○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	102,501	95,506	6,995

-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관련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개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

- 지하철역사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는 내년 4월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다른 복지시설의 예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운영비는 크게 증액된 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줄어들었음

- 주요 증액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 장애인콜택시 운영 ----- 10억 48백만원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 12억 2백만원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 10억 59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7억 61백만원
- 장애인생산품 공판장 기능보강 ----- 6억 25백만원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건립 ----- 18억 40백만원
- 성북장애인복지관 건립 ----- 14억 67백만원
-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3억 83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 26억 30백만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66억 11백만원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10억 13백만원

등 25개사업에 196억 3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감액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 127억 8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10억 56백만원

등 총 9개사업에 149억 95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신규사업으로는

- 금천장애인복지관 건립 ----- 18억 55백만원
-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건립 ----- 16억 17백만원

등 2개사업에 34억 7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5) 보건의료 분야

<표11> 성과목표별 자원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성 과 목 표	2005 예산안	2004 예산	증 감
합 계	100,480	77,337	23,143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8,122	8,585	△463
○ 전통음식 문화의 세계화	115	100	15
○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190	150	40
○ 화장실문화 세계 일류화	1,859	2,516	△657
○ 시민보건증진 및 환경오염 예방	5,958	5,819	1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92,358	68,752	23,606
○ 시립병원시설 현대화	46,339	39,750	6,589
○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만들기 추진	1,860	527	1,333
○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4,889	4,392	497
○ 지역 보건의료 기능 강화	39,270	24,083	15,187

-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을 2006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으며, 저소득시민의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라매병원 신관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저소득 무료암 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관련예산이 크게 늘어났으며,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건립비가 반영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시립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장비구매와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보조금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 특히, 신규사업 중에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절주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청소년 유해약물 안전관리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도 계획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증액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 37억 78백만원
- 시립보라매병원 노후 기계설비 교체 ----- 3억 10백만원
- 시립보라매병원 신관 신축 ----- 28억 90백만원
- 서대문병원 진료수준 제고 ----- 3억 85백만원
-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 3억원
-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 ----- 54억 24백만원
- 모자보건사업 ----- 12억 8백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 7억 40백만원
- 정신보건센터 운영 ----- 20억 62백만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18억 51백만원

등 36개사업에 208억 5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감액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기존 화장실 수준 향상 ----- 4억 50백만원
- 시립보라매병원 운영보조 ----- 3억 87백만원

등 총 15개사업에 18억 1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신규사업으로는

- 시립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보조 ----- 22억 61백만원
-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 3억 83백만원
- 건강도시 프로젝트 ----- 5억원
- 시민보건지표조사 ----- 3억원
- 외국인전담 진료소 운영 지원 ----- 1억원
-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 2억 80백만원
- 병원지원형 거주시설 운영 ----- 30억원

등 11개사업에 70억 2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2. 주요 사업별 검토

(1) 2005년 시행되는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가.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 검토

-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별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지방이양사업은 34개사업 2,198억 66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7개사업에 123억 5백만원, 여성정책이 6개사업에 399억 19백만원, 노인복지가 6개사업에 645억원, 장애인복지가 13개사업에 974억 39백만원, 보건의료가 2개사업에 57억 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그 사무를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그러나 이 법률안을 보면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이양 대상사업의 재원부담은 서울시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나. 지방이양사업에 대하여는 제로 기준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추어 보면 이양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기의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그 지역의 현실이나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시행 여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도우미 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사업의 경우 그 목표나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체계 관련(사업별 설명서 pp.11~12)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 2004년 10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167,490명이고 구체적으로는 일반수급자 150,505명, 특례수급자 5,235명, 시설수급자 11,750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2003년 이후 재산의 소득 환산제 도입,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 제도개선의 영향도 있지만 2004년에 들어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의 국내 경제침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12>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10월
총 수 급 자	177,780	168,897	157,854	159,716	167,490
일 반 수 급 자	165,341	154,601	141,648	144,253	150,505
특 례 수 급 자	2,182	2,698	2,881	3,403	5,235
시 설 수 급 자	10,257	11,598	13,325	12,060	11,750

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있어 도시적 특성 반영 필요

- 2004년 10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7,490명으로 이는 2004년 9월말 현재 서울특별시 인구 10,299,978명 대비 1.6%에 불과한데, 전국 규모를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04,170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2.9%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의 20%가 넘는 인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

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빈곤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검토 필요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요건에서 벗어나는 즉시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주거급여 등 모든 급여를 중단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과 빈곤탈출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에 대한 동기부여와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기본적인 급여를 보장해 줌으로써 자생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근로소득공제 등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 유인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근로소득공제 제도란 소득과약이 용이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초과 근로소득의 30%를 근로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소득과약이 어려운 경우 그 실효성이 적어 현재 전체 대상 중 20%에게만 제공되고 있음

(3) 쪽방 밀집지역 상담소 운영 및 거주자에 대한 주거확보 대책 관련 (사업별 설명서 p.18)

가. 쪽방밀집지역 현황 및 상담소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2004년 9월말 현재 쪽방거주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에 3,295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814명으로 24.7%에 불과함

<표13> 쪽방 밀집지역 현황

(단위 : 명)

구	분	쪽방건물수	쪽 방 수	쪽방거주자		
				계	일 시	장 기
합	계	361	4,098	3,295	356	2,939
종	로 구	150	1,285	969	149	820
중	구	63	1,193	935	83	852
용	산 구	51	1,061	886	35	851
영	등 포 구	97	559	505	89	416

- 쪽방 밀집지역 상담소는 종로구 2개소, 중구·용산구·영등포구 각 1개소 등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쪽방거주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회복,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복원을 비롯하여 목욕, 세탁, 이·미용, 무료급식, 건강검진, 취업알선 및 자활상담 등 다양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자치구의 쪽방 밀집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주거대책 마련 필요

- 자치구의 입장에서 보면, 쪽방 밀집지역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凶物)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문제는 자치구의 정비계획에 따라 쪽방이 철거되는 경우 쪽방거주자들이 철거보상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쪽방보다 턱없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불가능하며 결국 노숙자 등으로 전락하여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이에 대하여 복지여성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2-1권, p.390)를 보면 “쪽방 밀집지역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기관인 자치구가 주관이 되므로 서울시에서는 쪽방거주자들에 대한 별도의 주거환경 확보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나 쪽방 밀집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쪽방거주자를 정책대상 집단으로 파악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부조(公共扶助) 시책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4)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관련(사업별 설명서 p.21)

가. 본 사업의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지원대상 크게 증가

- 이 사업의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2,502명을 대상으로 37억 17백만원을 집행하였던 것이 2004년 11월말 현재 3,823명을 대상으로 56억 77백만원을 집행하여 2002년도 시행 당시와 비교할 때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규모면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예산전용은 개선 필요

- 본 사업의 2002~2003년도 결산을 보면 2002년도에는 62억 60백만원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였고 2003년도에는 14억 87백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음
- 또한 금년에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약 3억원의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을 3년 연속 전용한 것은 사업비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금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3,823명을 지원하는데 56억 77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내년도에 3,438명을 지원하는데 68억 44백만원을 편성한 것 또한 예산의 과다 계상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14>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사업 예산대비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산액	전 용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2002년	11,600	6,260	5,340	3,717	1,623
2003년	6,783	1,487	5,296	4,529	767
2004년 11월	6,744	299	6,445	5,677	768

(5)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관련(사업별 설명서 pp.28~29)

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감에 관계없이 의료급여 사업비는 증가추세

- 2004년 10월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187,244명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14,687명이 감소한 반면, 2003년에는 3,625명, 2004년에는 11,014명이 증가하여 2001년 의료급여 수급자 규모를 회복하고 있음

<표15>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10월
총 수 급 자	195,927	187,292	172,605	176,230	187,206
1 종 수 급 자	98,366	101,293	99,333	105,062	112,596
2 종 수 급 자	97,561	85,999	73,272	71,168	74,610

- 의료급여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증감에 관계없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16> 연도별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전망
합 계	180,771	288,424	265,402	282,214	306,083
관 리 비	398	614	858	874	956
사 업 비	180,373	287,810	264,544	281,340	305,127

-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창출과 의료수요의 증가를 야기하는데 2004년 10월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187,206명 중 60세 이상 노인은 57,992명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며, 다음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의 진료비 부담이 아예 없거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지적할 수 있음

나.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진단 제도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따라서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급여 사업비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진단 비용을 본인 부담 없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생활수준이 열악한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여 만성질환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시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서 우리나라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환자의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간에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환자의

질병유형이나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고 중복·과잉진료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6) 서울복지재단 및 (재)서울여성 출연금 관련(사업별 설명서 p.36, p.43)

가. 재단법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예산의 출연금 편성 적정성 여부

- ‘출연’(出捐)의 법률적 의미는 “자기의 의사로써 그 재산을 감소시켜 그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7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3 및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에서 유추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이란 지방공사의 자본금과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
- 다만,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p.72)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의 운영비나 사업비도 출연금으로 편성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지침의 관련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예산에 대해서만 출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5년도 예산안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136억 54백만원 중 36억 54백만원, 「(재)서울여성 출연금」 40억원은 위 지침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재단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 규모의 적정성 및 형평성 문제

-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설립한 재단의 기본재산 규모로 볼 때 서울복지재단의 출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표17> 서울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복지재단	(재)서울여성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산업진흥재단
2004말	현재액	500	501	50,000	228,200	17,000
2005	출연계획	10,000	-	30,000	20,000	-
2005말	현재액	10,500	501	80,000	248,200	17,000

- 문제는 서울복지재단이 서울시에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볼 때 기본재산 출연이 필요한가 하는 점임
- 또한, 문화재단의 경우 2006년까지 1,000억원의 기본재산을 서울시에서 출연하고 2010년까지는 수익사업을 정상화하여 자체 운영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연도별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서울복지재단의 경우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바도 없음
- 더욱이 기본재산의 출연이 서울시의 지원 없이 독립채산(獨立採算)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제도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재)서울여성에 대하여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겠음
- 따라서 서울복지재단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재산의 출연을 서두르는 것은 재정운영의 원칙에도 맞지 않음

(7)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 재정립(사업별 설명서 p.39~40)

가.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상의 유사성 검토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3년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하여 2001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부에 이관되었으며,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보조하는 기관위임사무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떠안게 되었음
- 지방이양사업 검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 기준에서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양 기관이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특화방안 마련

-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문직업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 이렇게 된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되는 특화사업비는 이러한 발전방안을 염두에 두고 센터별로 차별화된 전문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8) 공부방 지원사업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사업별 설명서 p.61)

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의의 및 현황

-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1985년부터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던 것을 공부방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그 기능을 확대한 것임

나. 지역사회 공부방 지원사업 관련 성과지표 재검토 필요

-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중 지역사회 공부방 지원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보면 공부방 확충 및 이용실적을 제시하고 공부방을 2004년 77개소에서 2005년도 93개소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이러한 고유업무 외에 같은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가정 지원사업, 아동 주간보호 사업, 아동 전문상담 사업, 학대아동 보호사업, 공동생활 가정 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 사업을 부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으로 판단할 때, 성과지표는 공부방 확충실적보다는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사회와 연계 실적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 지역사회 공부방에 대한 일률적 운영비 지원방식 재검토 필요

- 2004년도 지역사회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운영 정원에 따라 개소당 월 2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차등 지원하였음
- 그러나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시설 정원에 관계없이 개소당 월 2,000,000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시설규모나 종사자 정·현원, 운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가정문제 지원정책 강화(사업별 설명서 p.66)

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설립취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역할

-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의 ‘가족’의 개념에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부 여성 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가정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 같은법 제1조에서 규정한 입법취지를 보면, “이 법은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특히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나.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의 확대를 통한 입법 취지 구현

- 이와 관련된 사업이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인데 그 내용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크게 확충된 것을 알 수 있음
- 우선 사업비를 보면 2004년도 1억 1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05년도 예산은 3억 9백만원이 늘어난 4억 2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에서도 노부모 부양가족 프로그램,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자녀 심리안정 프로그램, 결혼 예비교실 운영, 건강가정 워크숍 개최 등 세부사업에 있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있음

- 이혼율 급증, 핵가족 확대로 인한 가족의 기능 약화 등의 가정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구성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가 각종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떠한 가족형태이든지 존중되어야 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10)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민간 보육시설 지원 관련(사업별 설명서 p.68)

가.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인원, 이용률 분석

- 2004년 6월말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546개소(11.5%), 민간 보육시설이 2,435개소(51.1%), 직장 보육시설이 62개소(1.3%), 가정 보육시설이 1,718개소(36.1%)로 나타나고 있음
- 이용율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중 법인시설이 90%를 넘고 있으며, 다른 시설은 대체로 82~86%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가정 보육시설은 67.4%에 불과해 일반 시민들이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충실한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 중 법인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음

<표18>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 설 수	보육아동 현황			종사자
			정 원	현 원	이용율	
합	계	4,761	188,135	162,703	86.5%	20,982
국	공 립	546	49,083	47,381	96.5%	5,361
민간	소 계	2,435	108,988	94,694	82.9%	11,613
	법 인	89	6,169	5,693	92.9%	633
	법 인 외	105	4,400	3,749	85.2%	602
	개 인	2,241	98,419	85,252	86.6%	10,378
직	장	62	3,416	2,892	86.4%	417
가	정	1,718	26,648	17,736	67.4%	3,591

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국·공립 보육시설 편중의 문제

- 국·공립 보육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50억 45백만원이 증액된 65억 94백만원이 계상된 반면, 민간 보육시설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에 편성되었던 민간융자금 20억원은 융자실적이 없어 2005년도에는 계상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민간 보육시설 활성화가 서울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책상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보육시설 실태를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있어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보육수요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몰리고 있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다. 민간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예산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기금 내 보육계정 설치 검토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전액 시비로 계상된 21억 86백만원에 대하여는 자본형성적 시설개선 부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 실질적으로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누되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큰 비중을 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액조치도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됨
- 2004년도 민간보육시설 융자금 예산의 지원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예견된 사항임
- 융자금의 경우 기금을 설치하여 원리금 상환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우선 사회복지기금 내 보육계정의 설치를 제안하며, 융자절차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를 결정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1)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 지급 사업 관련(사업별 설명서 p.83, p.89)

가.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

- 2004년 6월말 현재 서울시 노인인구는 669,592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 10,196,501명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38,506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05년도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를 보면, 서울시 노인인구는 총 706,768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 9,982,588명의 7.1%를 차지해 비로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9> 2005~2009 서울시 노인인구 추계(통계청)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시인구	9,982,588	9,960,712	9,938,477	9,916,035	9,893,580
노인인구	706,768	751,461	798,908	842,092	880,410
노인인구비율	7.1%	7.5%	8.0%	8.5%	8.9%

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감소 추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경로연금 산출근거를 보면 경로연금 수급자가 2004년 47,790명에서 2005년 46,656명으로 1,134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推計)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2005년 서울시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2019년이면 인구 전체에서 65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장기 전망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계측(計測)이라 볼 수 없음
-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많아 빈곤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소득수단이 많지 않은 노인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증가 추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통계청의 2005년도 65세이상 노인인구 추계에 따라 그 산출기초를 706,768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서 17,917명분의 노인교통수당 12억 90백만원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라.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의 축소와 교통수당 현실화 검토 필요

- 현재와 같이 노인교통수당을 노인의 소득정도나 생활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에도 맞지 않으며,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 이에 따른 재원부담으로 노인 복지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나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제약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도 경로연금과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현재의 지급기준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사업별 설명서 p.92)

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와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 있는 역할을 부여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세이상 노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78.8%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면 노인인구의 취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 중심의 일거리와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대체로 단순노동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발굴

-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는 정년퇴직하는 사원을 퇴직후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이 평생동안 쌓아온 노하우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 신규직원이 숙련도를 높이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자연환경 정비, 교통질서 계도, 주차관리원, 지하철 택배와 같은 한시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보다는 자신이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에 대하여 자문을 주는 업무 등 독창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13)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사업 통합(사업별 설명서 p.99, p.101~101)

가.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재검토

- 장애인 해피콜 사업 현황을 보면, 2004년 10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개인택시가 918대이며, 콜실적이 273,445콜, 1일 평균으로는 911콜로 충분히 채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 장애인이 아닌 시민의 콜율이 273,445콜 중 188,727콜로 6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업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함

나.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은 장애인콜택시 사업으로 통합 검토

-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중증 지체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차이가 없음

- 2005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업추진을 위하여 20대의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 있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유형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보면, 민원대행 업무, 출·퇴근, 병원이용, 외출·귀가 등 장애인 콜택시가 하고 있는 기능과 별로 다를 것이 없으며,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경우에는 콜기능이 없어 미리 1시간전에 예약하여야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애인 콜택시는 필요한 시간에 곧바로 이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콜택시의 콜연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의 콜택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거나 중증 지체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차이가 없음

다.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직영하는 방안 재검토

-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는 콜센터 운영을 직영하는데 따른 예산으로 7억 48백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2002년 10월 장애인 콜택시 추진 검토를 할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방재본부의 「119 구조구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를 활용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음
- 소방방재본부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인력이나 부대장비 운용에 있어 최소한의 예산만 소요되고 콜을 신청한 시민의 위치파악도 신속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VI. 예비심사 결과

1.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 음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 구 성

3. 심사 결과

- 일반회계 : 수정 가결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원안 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6. 예산(안) 수정내역

- 따로붙임

붙임1) 수정동의 내용

● 조일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복지여성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 |
|-----------------------|-----------|
| - 여성네트워크 강화 및 여성정책 홍보 | 5천만원 |
| - 노인교통수당 지급 | 12억9천만원 |
| - 추모공원 건립 | 8억3천만원 |
| -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 | 15억원 |
| -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 34억3천9백만원 |
| - 여성발전센터 운영 지원 | 1억원 |
|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 1억원 |
| - 금천장애인복지관 건립 | 18억5천5백만원 |

총 8건 91억 6천 4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 재료비 1억원
- 노인생활시설 운영(도봉노인전문요양원) 2천5백만원
-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보조금 3천9백만원
- 서울시 장애인 무료 해변 캠프 5천5백만원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구 지원센터 운영 2억5천만원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외장벽 보수비 4억원
- 동천장애인 아이스링크 운영비 3억원
-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1억5천만원
-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 1억5천만원
- 재가노인 간병사업 3천만원
- 서로나눔의재단 운영 지원 6천5백만원
- 신길1동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천만원
- 무료간병인 지원사업 5억원
- 은평병원 ATC 1억원
- 시립보라매병원 ATC 외 휠체어 기능장비 3억원
- 서대문병원 약제비 4억원
-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3천만원
- 장애인 후원 결연사업 지원 6천5백만원
- 노숙인 구호의료비 5억원
- 거리노숙인, 쪽방, 고시원 등 전수조사 1억원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센터4,자치구9) 5억5천4백만원
- 장애아 통합보육 지원 1억7천5백만원

- 장애청년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억6천5백만원
- 운전기사 전립선 질환 이환 실태조사	1억원
- 서울지역 장애인 근로자 직무환경 분석 사업	1억5천만원
- 등촌 1,4,9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1억5천만원
- 가양7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5천만원
- 가양7복지관 냉난방 및 선풍기, 냉동기 구입	2백만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	8억1천1백만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억2천6백만원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억6천6백만원
- 여성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1억9천6백만원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3억4천2백만원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6천만원
- 정립회관 수영장 건립	15억원
- 가정문제예방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신고시설(5개소) 운영비	4억원
- 하이페스티벌 시민걷기대회 장애인 참여 지원	1억원
- 장애인공판장 운영비 지원	1천2백만원
- 다니엘 복지원 취사장 및 화장실 개보수	1억4천6백만원

각각 증액하여 총 40건 91억 6천 4백만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 여러분 !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2) 보건사회위원회 계수조정 심사표

1. 세입예산 : 원안가결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 수정가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심사 결과			비 고
	소 계	증 액	감 액	
일 반 회 계	-	9,163,845	△9,163,845	수정가결
- 사 회 복 지	△1,250,000	7,663,845	△8,913,845	
노인 교통수당 지급	△1,290,000	-	△1,290,000	
추모공원 건립	△830,000	-	△830,000	
구립 낚골시설 건립비 지원	△1,500,000	-	△1,500,000	
승강 편의시설 확충 공사	△3,439,224	-	△3,439,224	
금천장애인복지관 건립	△1,854,621	-	△1,854,621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외장벽 보수	400,000	400,000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신길1동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0,000	50,000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등촌 1·4·9 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150,000	150,000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가양7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50,000	50,000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가양7복지관 냉난방 및 선풍기, 냉동기 구입	2,000	2,000	-	
노숙자 의료구호비	500,000	500,000	-	
거리노숙자 특별보호 - 노숙인, 쪽방, 고시원 등 전수조사	100,000	100,000	-	
아동안전보호(자치단체경상보조)	39,222	39,222	-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 가정문제 예방 프로그램 운영	50,000	50,000	-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175,299	175,299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심사 결과			비 고
	소 계	증 액	감 액	
노인생활시설 운영 - 도봉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지원	25,000	25,000	-	
노인생활시설 운영 - 서로나눔의재단 운영 지원	65,000	65,000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재가노인 간병사업 지원	30,000	30,000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 자치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센터 지원	250,000	250,000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센터 4개소, 자치구 9개소)	554,000	554,000	-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	11,700	11,700	-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등 지원	65,000	65,000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811,450	811,450	-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개최	150,000	150,000	-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 Hi-Seoul 페스티벌 시민걷기대회 장애인 참여 지원	100,000	100,000	-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30,000	30,000	-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196,000	196,000	-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동천 장애인 아이스링크 운영	300,000	300,000	-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341,500	341,500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신규 신고시설(5개소) 운영지원	400,000	400,000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25,890	425,890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65,880	165,880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 다니엘복지원 취사장 및 화장실 개보수	145,904	145,904	-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	150,000	150,000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센터 운영 - 청년장애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165,000	165,000	-	
정립회관 수영장 재건축	1,500,000	1,500,000	-	
서울시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지원	55,000	55,000	-	
서울지역 장애인근로자 직무환경 분석사업	150,000	150,000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60,000	60,000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심사 결과			비 고
	소 계	증 액	감 액	
- 여성 정책	△ 150,000	-	△ 150,000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	△ 100,000	-	△ 100,000	
여성네트워크 강화 및 여성정책 홍보	△ 50,000	-	△ 50,000	
- 보 건	1,400,000	1,500,000	△ 100,000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 100,000	-	△ 100,000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	100,000	100,000	-	
시립보라매병원 운영보조 - ATC(의약품 자동분포기) 외 휠체어 기능장비 구입	300,000	300,000	-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 ATC(의약품 자동분포기) 장비 구입	100,000	100,000	-	
서대문병원 진료수준 제고 - 서대문병원 약제비	400,000	400,000	-	
무료 간병인 지원 사업	500,000	500,000	-	
운전기사 전립선 질환 이환 실태 조사	100,000	100,000	-	
의 료 금 여 기 금 특 별 회 계	-	-	-	원안가결